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하라”

‘대통령 거부권 거부한다’ 1박 2일 투쟁 ... “노조법 거부, 윤 정권 몰락 재촉”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이 11월 15일 저녁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 선전전, 투쟁문화제 등을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하라” 라고 촉구했다.



은 “윤석열은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폭력배로 매도하고, 재난과 같다며 없는 죄를 만들어서 탄압한다”라며 “노동자를 모두 거리로 내몰려는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한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개정안을 즉각 공포를 요구하는 투쟁을 매일 이어가고 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문화제에서 “극악무도한 윤석열이 개정 노조법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윤석열과 결판을 지어야 한다”라며 “개정 노조법은 절박한 민생법안이다. 윤석열은 즉각 공포해야 한다. 거부하면 노동자들의 거대한 저항 직면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이장원 금속노조 전북지부 조직부장은 “노조 활동 시 당할 수 있는 손해배상 가압류 제도 때문에 사업

장을 새로 조직할 때 노동자에게 너무나 많은 결의를 요구해야 한다”라며 “투쟁 시 사측이 손배 가압류를 때릴 수 있다는 무거운 압박을 받으며 사업장을 떠나고, 압박을 각오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다.

이장원 조직부장은 “헌법상 보장한 노동삼권에 따라 전 국민이 자기가 원하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조직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나 힘들다” 라면서 “손배 문제를 풀어 내지 못하면 금속노조, 민주노총 등은 소수 노동자, 노동조합으로 간혀 있을 수밖에 없다. 노조 가입을 어렵게 하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박래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이 손배 폭탄을 완전히 금지하지 못했지만, 노조법 2조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내용은 큰 의미가 있다” 라면서 “대통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거부하면 자신의 계급 본질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다. 노조법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길을 재촉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문화제를 마친 금속노조 등은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6시까지 1인 텐트를 펴고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11월 16일 아침 광화문 네거리에서 출근 선전전을 전개하고 1박 2일 투쟁을 마무리했다.

LG케어솔루션지회,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 수상

YH무역 김경숙 열사 기리는 상 ... “특수고용노동자 노조할 권리 확대 투쟁할 것”

금속노조 서울지부 LG케어솔루션지회가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 을 공동 수상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와 김경숙열사기념사업회는 11월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살림 다목적홀에서 ‘불안의 시대, 우리는 끝까지 뭉친다’ 라는 주제로 제10회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 시상식을 열었다.



김경숙 열사는 1979년 YH무역의 불법과 폐업에 저항하며 동료들과 신민당사 점거 농성을 시작했고, 강제해산에 나선 경찰 폭력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한국여성노동자회와 김경숙열사기념사업회는 뜻을 기리기 위해 ‘김경숙상’ 을 제정했다.

최순영 김경숙열사기념사업회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투쟁하지 않으면 조금도 이룰 수 있는 게 없다” 라며 “길게 내다보고 동지들과 함께 즐겁게 투쟁하길 바란다” 라고 격려했다.

김경숙상 심사위원단은 “LG케어솔루션지회는 사측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투쟁을 멈추지 않았고, 2020년 노조 출범 2년 3개월 만에 가정방문 점검업체 최초로 단체 협약을 맺었다” 라면서 “법원도 LG케어솔루션 노동자들의 노동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했

다” 라고 설명했다.

심사위원단은 “LG케어솔루션지회 조합원들이 물러섬 없이 싸워 이뤄낸 결과이다” 라며 함께하며 노동조합을 지킨 여성노동자의 당당한 모습에서 김경숙 열사의 정신을 봤다” 라고 시상 사유를 밝혔다.

김정원 LG케어솔루션지회장은 “스물두 살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자본과 공안 탄압에 맞서 목숨을 걸고 투쟁한 김경숙 열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조 활동을 하고, 대우 받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 라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김진희 수석부지회장은 “소비자 가정을 방문해 렌탈 가전제품을 점검하는 노동자 대부분은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다” 라며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

이 더 나은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세상을 만드는 게 노조 활동의 최종목표다. 열심히 투쟁하겠다” 라고 결의했다.

하이케어솔루션은 LG전자가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이고, 정규직 400여 명과 특수고용노동자인 방문점검 노동자 4,7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케어솔루션 노동자들은 부당한 처우와 수수료 체계 개선을 요구하며 2020년 5월 금속노조 서울지부 LG케어솔루션지회를 설립했다. 지회가 끊임없이 조합원을 확대하고 투쟁한 결과, 지난해 9월 동종업계 최초로 임단협을 체결하고 현재는 두 번째 교섭을 벌이고 있다.

사측이 교섭에서 노조의 요구를 무시하고 시간을 끌고 있지만, 조합원들은 굴하지 않고 쟁의를 전개하고 있다.